

광주·전남 '부의 대물림' 급증했다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1조4400억...전년비 45.28% ↑ 양도세 부담에 건물 증여액 87.10% 늘어난 3884억원

광주·전남지역에서 자산 상속과 증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대물림'으로 통하는 상속·증여재산 규모가 지난해 신고액 기준 1조 4400억원을 넘어섰다. 그 중에서도 건물 증여가 2배 가까이 불어나면서 가장 많이 늘었다. 부동산 규제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집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해 세금을 줄이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일 국세청의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증여세 신고는 9038건으로, 전년(7713건) 대비 17.18%(1325건) 증가했다.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은 전년 6852억3700만원에서 43.22%(2961억7700만원) 늘어난 9814억1400만원으로 파악됐다. 1건당 평균 1억859만원을 증여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3452건에서 4238건으로 22.77%(786건) 증가했고, 재산가액은 3845억

500만원에서 5479억9800만원으로 42.52%(1634억9300만원) 늘었다. 전남은 4261건에서 4800건으로 12.65%(539건) 증가했으며, 재산가액은 3007억3200만원에서 4334억1600만원으로 44.12%(1326억840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는 광주·전남이 279명, 상속재산가액은 4603억310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신고인원은 30.37%(65명), 재산가액은 49.87%(1531억 7600만원)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가 전년 115명 1748억6300만원에서 152명 2484억1400만원으로 각각 32.17%(37명)·42.06%(735억5100만원) 늘었고, 전남은 99명 1322억9200만원에서 127명 2119억1700만원으로 28.28%(28명), 60.19%(796억250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상속과 증여 방식으로 이전된 부(富)를 합산하면 그 규모는 무려 1조4417억4500만원에 달한다. 1년 전 9923억9200만원에

비해 4493억5300만원(45.28%)이나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급 규모다.

자산의 증여 증에서도 건물 증여가 폭증했다. 지난해 광주·전남 건물 증여는 총 3240건, 3884억 8300만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전년(2430건)에 비해 33.33%(810건)이 증가한 데다, 재산가액은 전년(2076억3500만원) 대비 87.10%(1808억4800만원)가 폭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광주는 1140건에서 1581건(13.16%·150건 ↑), 1166억1800만원에서 2183억6800만원(87.25%·1017억5000만원 ↑)으로 늘었고, 전남은 1290건에서 1659건(28.60%·369건 ↑), 910억 1700만원에서 1701억1500만원(86.90%·790억 9800만원 ↑)으로 급증했다.

이는 기본세율 6~45%,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10%, 가중세금 등 최고 75%나 되는 양도세에 비해 증여세율은 10~50%에다 6억원까지 재산공제를 받는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에 비해 증여가 유리하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 매매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유가증권이다. 유

가증권 증여는 광주가 318건 615억5700만원에서 436건 953억2400만원으로 각각 37.10%(118건)와 54.85%(337억6700만원) 증가했고, 전남은 188건 219억7200만원에서 327건 487억8400만원으로 73.93%(139건)·122.03%(268억1200만원) 늘었다. 광주·전남 모두 더하면 증여 건수는 506건에서 763건(50.80%·257건 ↑), 재산가액은 835억 2900만원에서 1441억0800만원(72.52%·605억 7900만원 ↑)으로 늘었다.

금융자산은 광주가 742건 646억6700만원으로 각각 13.11%(86건), 14.35%(81억1300만원) 증가했다. 전남은 378건 393억0600만원으로 건수는 -1.05%(-4건)로 줄어든 것과 달리, 재산가액은 오히려 56.67%(142억1700만원)나 늘었다.

반면 토지증여 증가폭은 미미했다. 작년 토지증여는 광주가 1484건 1353억6000만원으로 0.61%(9건)·1.30%(17억3500만원) 증가했다. 전남은 2668건 1555억5800만원으로 건수는 -2.70%(-74건) 줄었고, 금액은 3.34%(50억2400만원)로 소폭 올랐다.

한편 개별소비세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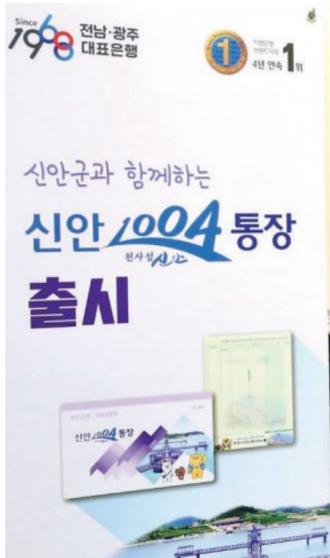
↓ 코스피	3282.06 (-14.62)
↑ 코스닥	1035.64 (+5.68)
↑ 금리(국고채 3년)	1.469(+0.021)
↑ 환율(USD)	1133.10(+7.00)

정책 시행에 따라 광주·전남의 판매대수가 5만 3770대에서 5만6386대로 4.87% 늘었지만, 세수는 423억7900만원에서 353억6800만원(-16.54%)으로 감소했다.

이밖에 경매장은 이용객이 44만명에서 6만4000명(-85.45%)으로 급감했고, 납부할 세금도 8억 8100만원에서 1억2900만원(-85.35%)으로 줄었다. 유흥업소 역시 같은 기간 36억9700만원에서 21억1200만원(-42.87%)으로 감소했다.

다른 업종과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호황을 누린 골프업계는 개소세가 증가했다. 광주·전남 소재 골프장의 이용객은 전년 70만3000명에서 지난해 79만1000명으로 12.5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개소세도 작년 78억8900만원으로 전년(73억2200만원) 대비 7.7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기준으로, 대중제 골프장은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광주은행 '신안 1004통장' 출시
수. 김미경 광주은행 북항지점장.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일 판매수의 일부를 지자체에 기부하는 지역사랑통장인 '신안1004통장' 2000권을 한정판으로 내놓으며 박우량 신안군수와 '1호 가입' 행사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최영 광주은행 부행장, 박우량 군 <광주은행 제공>

한전 나주 본사에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마련

센터 홈페이지 신청 가능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나주 본사 등 3개 지역에 '전력데이터 공유센터'를 확대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전력데이터 공유센터'는 이용자가 물리적 보안

이 확보된 공간에서 전력데이터를 분석하고, 서비스 모델을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분석환경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한전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서울시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 센터를 운영해왔다. 이 센터는 연 인원 1200명이 이용했으며, 주로 학계와 창업기업

이 활용해 왔다. 이번에는 나주 본사 2층을 포함해,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와 한전 대구본부 등 3곳에 센터가 마련됐다.

전력데이터 공유센터는 홈페이지(bigdata.kepco.co.kr)를 통해 이용 신청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를 통해 산학연에서 보다 편리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판식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 임명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이판식(56·사진) 현 부산지방국세청 정세송무국장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1일 국세청 차장과 서울청·중부청·부산청·광주청장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장흥 출신인 이 신임 광주청장은 장흥고와 세무대(47기)를 졸업한 뒤 1986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정세송무국장 등 주요 직위를 지냈다.

부산청 정세송무국장 재직 당시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정리를 통해 체납징수 실적제고에 큰 성과를 거뒀다.

또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소송사건 관리를 더욱



강화해 불복청구에 대한 인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 시절 2위인 신임 차장에는 임광현 서울청장이 임명됐다. 이밖에 서울청장에는 임성민 부산청장, 중부청장에는 김재철 서울청 조사3국장, 부산청장에는 김창기 중부청장, 대전청장에는 강민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한편 송기봉 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일 오전 퇴임식을 갖고 명예퇴직한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세열급

"효율적인 정책 집행...경제활성화 힘쓰겠다"

김공진 광주지방조달청장

"효율적인 조달정책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 말했다.

1일 취임한 김공진(55·사진) 제34대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이날 광주시 북구 오흥동 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든다"며 "혁신조달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효



율적인 조달정책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 말했다.

고흥 출신인 김 청장은 충남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장, 서울청 장비구매과장, 규제개혁담당관 등을 지냈다. 지난 2001년과 2012년에 조달청장 표창을, 2013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

장성토지 (분양 매매)	상가매매 (상무지구)
<p>광주에서 20분 (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토지평수 (150평, 200평, 500평, 1800평)</p> <p>★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p>	<p>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3천 (용 4억)</p> <p>2) 월수익 300만,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 영화관 앞) 6층(60평) 매가4억5천(보2천 200), 용 2억6천 7층(40평) 매가 2억3천(보1천 100), 용 9천</p>
010-8660-9801	010-6670-980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